****

**선교 활동 보고**

**어려운 시기 속 미국장로교라는 안전망**

눈물이 성령의 은사라면 주디 맥밀란 목사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. 그 눈물 중 일부는 기쁨이 아닌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을지라도 말입니다.

20년 전 네브라스카에서 미시간으로 이주하여 부교역자로서의 부름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행복하게 시작한 그녀의 삶은 시작과 같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. 사역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나자 자신의 위치가 맞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고, 그녀는 교회를 떠났습니다.

주디는 그 시기가 정말 힘든 시기였다고 말합니다. 이전에는 부르심 속에 있었는데, 이제는 대출을 받아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

그녀는 임시 목회 교육을 받는 동안 꽃집에서 일하며 자신을 다시 만들어 갔습니다. 그 동안 그녀는 대출 상환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예산을 세웠습니다. 재정적으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4개월이었습니다.

주디는 여성 목회자 모임의 목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힘들다고 말했고, 두 사람은 점심을 먹기 위해 만났습니다. 주디는 "누군가가 편하게 되면 그냥 울게 되는 그런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"라고 말했습니다. "울면서 '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'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."

함께 기도한 후,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친구가 ['성탄의 기쁨' 특별 헌금](https://specialofferings.pcusa.org/offering/christmas-joy/)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. 주디는 "목사로서 특별 헌금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, 제 상황을 위한 헌금인 줄은 몰랐습니다"라고 회상했습니다. 도움이 필요할 때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해주는지를 알게 되자 기운이 났습니다.

주디에게 필요한 '도움'은 '성탄의 기쁨' 특별 헌금으로 지원되는 [연금국](https://www.pensions.org/)의 [보조금 프로그램을](https://pensions.org/search?query=assistance+program%27) 통해 이루어졌습니다. 그녀는 대출 상환 자금이 떨어지기 직전, 보조금을 받았습니다. '성탄의 기쁨' 특별 헌금은 소수 인종 공동체를 양성하는 장로교 연게 학교들 또한 지원합니다.

주디는 최악의 재정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후 미시간주 [로얄오크 제일장로교회](https://www.fpcro.org/)의 임시 목사가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.

주디는 장로교인들이 관대하게 내어준 특별 헌금이 어떻게 자신의 길을 열어주었는지 교회들에 알리고 싶어합니다. 여러 임시 사역을 거쳐 현재 아칸소 주 벨라 비스타 장로교회의 목사가 된 주디는 현재 자신의 간증을 회중과 공개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.

"목회 리더십과 교단을 섬기는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해주기에 '성탄의 기쁜' 특별 헌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언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, 안전망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은혜이자 사랑입니다."

사랑을 나누세요! '성탄의 기쁨' 특별헌금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힘을 보태주십시오.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...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보태면, 큰 힘이 됩니다.

***기도합시다.***

*은혜로우신 하나님,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은사를 통해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. 우리가 받게 될 선물을 가지고 기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번영을 돕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* **아멘.**